

혁신도시 편의시설 속속... 교육·의료시설은 부족

〈나주 빛가람〉

은행·식당 등 736곳 들어서 이주민 불편 상당 부분 해소

어린이집·학원·병원은 턱없이 모자라... 학부모들 큰 불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동)가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주변에 오피스텔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확충돼 초기에 겪어야 했던 직원과 이주민들의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2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빛가람동에 들어선 병원과 약국, 은행 지점, 학원 등 각종 편의시설은 7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10곳 ▲약국 3곳 ▲식당 195곳 ▲편의점 42곳 ▲분식점 25곳 ▲주점 37곳 ▲카페 32곳 ▲치킨집 16곳 ▲금융 17곳 ▲학원 31곳 ▲제과점 11곳 등이다.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이주도 늘면서 최근에는 성형외과가 문을 여는 등 빛가람동의 상권이 틀을 잡아가고 있다. 마트와 편의점이 생겨 실생활용품의 구입도 쉬워지고, 법무사 사무실(7곳) 등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빛가람동의 인구는 1만7924명이지만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은 1144명이고, 이 전기관의 어린이집 정원도 438명에 불과하다.

학교 유치원 3곳의 정원은 391명인데 이미 정원을 1명 초과해 340명이 다니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은 438명인데, 현재 인원은

■ 빛가람 혁신도시 편의시설

 금융	17	 분식점	25
 병원	10	 주점	37
 약국	3	 카페	32
 학원	31	 치킨집	16
 식당	195	 제과점	11
 편의점	42	※ 9월 30일 현재	

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병·의원이 모여 있는 메디컬빌딩이 들어서고 있지만 병·의원은 치료

와 내과 중심이며 소아과는 한 곳뿐이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약국도 3곳에 불과하다. 병원의 진료 과목 편중도 심각하다.

현재 31곳의 학원이 운영 중이지만 태권도와 음악, 미술 등 예제는 중심이며 영어와 수학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변화가를 중심으로 몰려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광주 학원계 등에서 빛가람도시 내의 수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개업이나 분원 개설을 꺼리기 때문이다.

주민 서부광(43)씨는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3월에 이미 차 버려서 6살, 2살 아이들을 4개월 동안 옆 동네 아파트 단지에 맡겨야 했다”면서 “전문 입시 학원이 전혀 없어 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美·日 한인 청년들 새날학교 벽화 그리기 ‘2016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참석차 방한한 미국, 일본의 한인 청년들이 광주시 광산구 새날학교를 찾아 벽화를 함께 그리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검사, 의사, 디자이너, 정보통신 개발자 등으로 각종 주류 사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2~3세로, 행사 기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키워 거주 국가와 고국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 일시 : 2016. 10. 23(일) 08:0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374-6685

대 촌 중 학 교
총동문회장 차 희 준

검찰, ‘미르·K스포츠’ 수사 최순실 통화 내역 확보 나서

문체부 관계자 2명 소환조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재단의 설립 경위를 확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20일 소환 조사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

사)는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체부의 국장급 관계자 2명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한 지 약 3주 만이다.

또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사실상 강제수사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재단 측과 최씨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두 재단 관계자의 전화 통화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대상자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과 관련해선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모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체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장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를 상대로 두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설립 과정에 문제

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물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방향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며 출국 행선지는 독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시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2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 시 : 2016. 10. 22(토) 09:00

● 장 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 전 화 : (062) 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 흥 민

우리 함께 해요
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오래! 광주, 참 좋아요



활기차서 좋아요
미래
활력

● 나눔·봉사 실천하기
● 어린이·청소년 격려하기



자랑해도 좋아요
광주로 오세요

● 광주 맛·명소 자랑하기
● 친구, 광주 초대하기



광주에서 좋아요
민주
안전

● 광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 생활 속 안전 실천하기



깨끗해서 좋아요
청결

● 나부터 질서·청결 참여하기
●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하기



함께하면 좋아요
배려
포용

●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 이웃간 배려와 칭찬하기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광주!